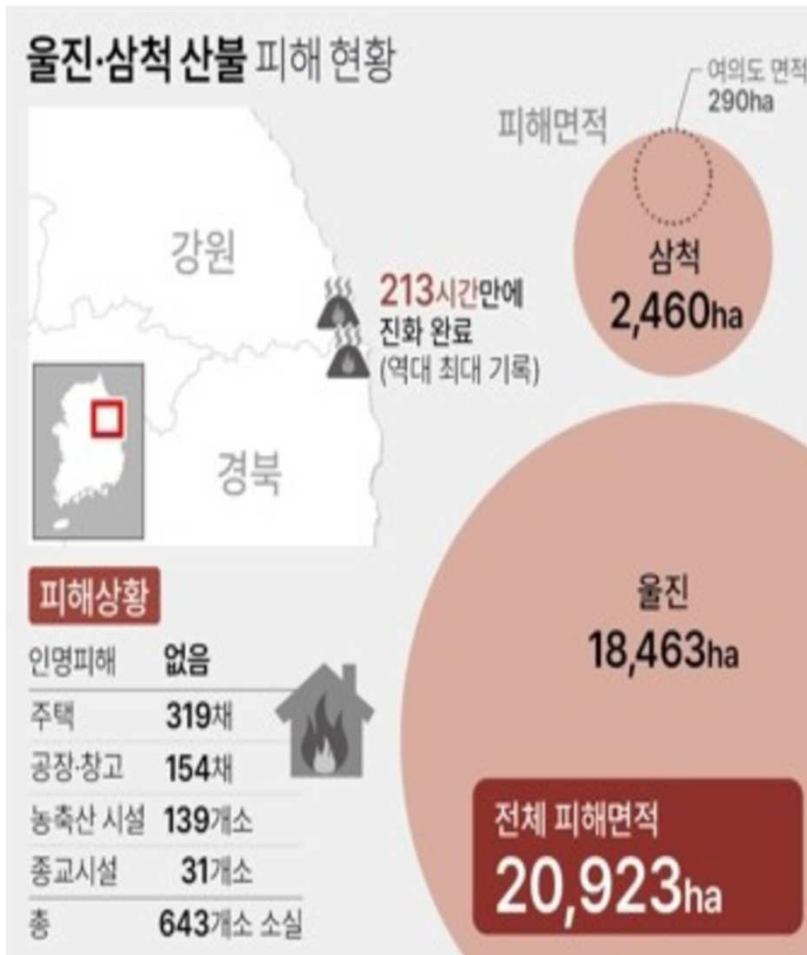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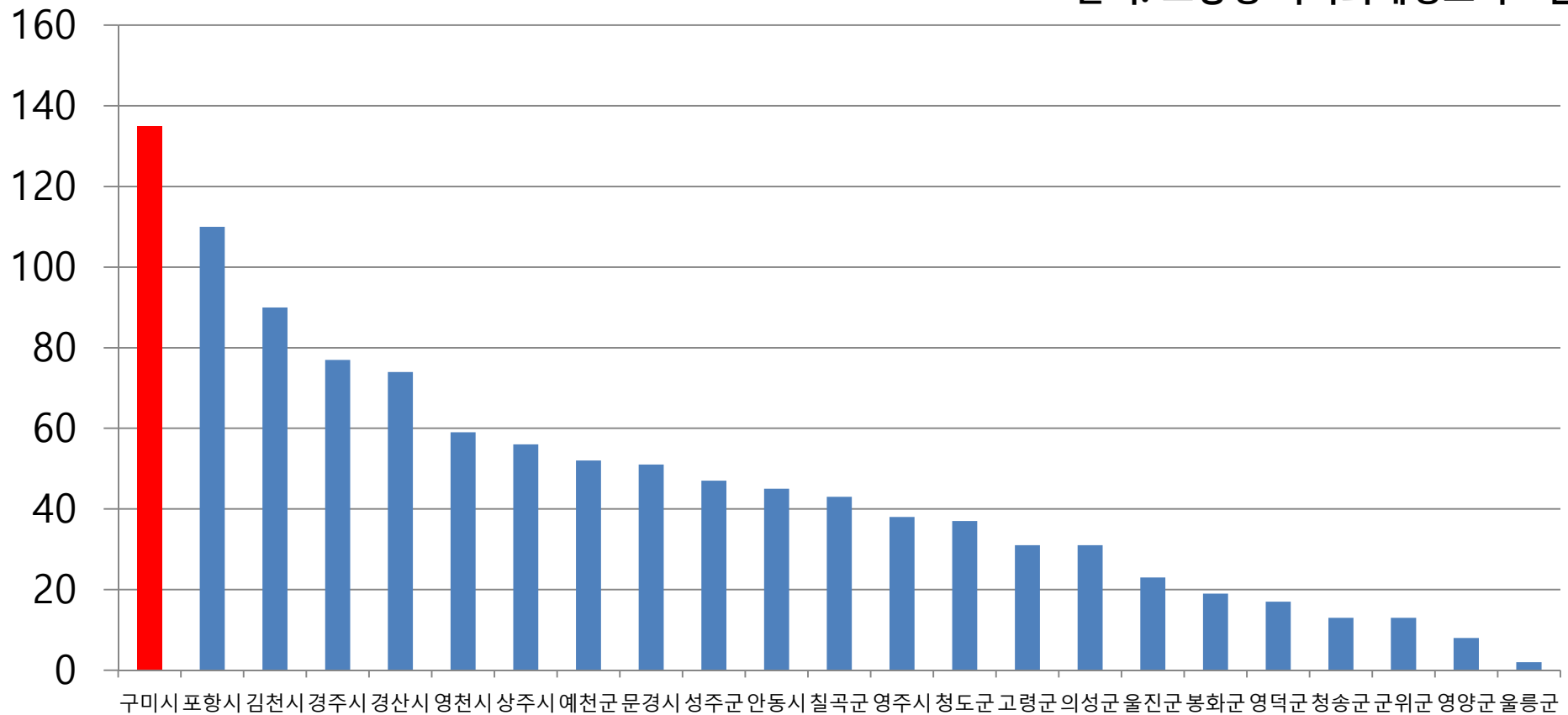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3년 경상북도 시, 군 화재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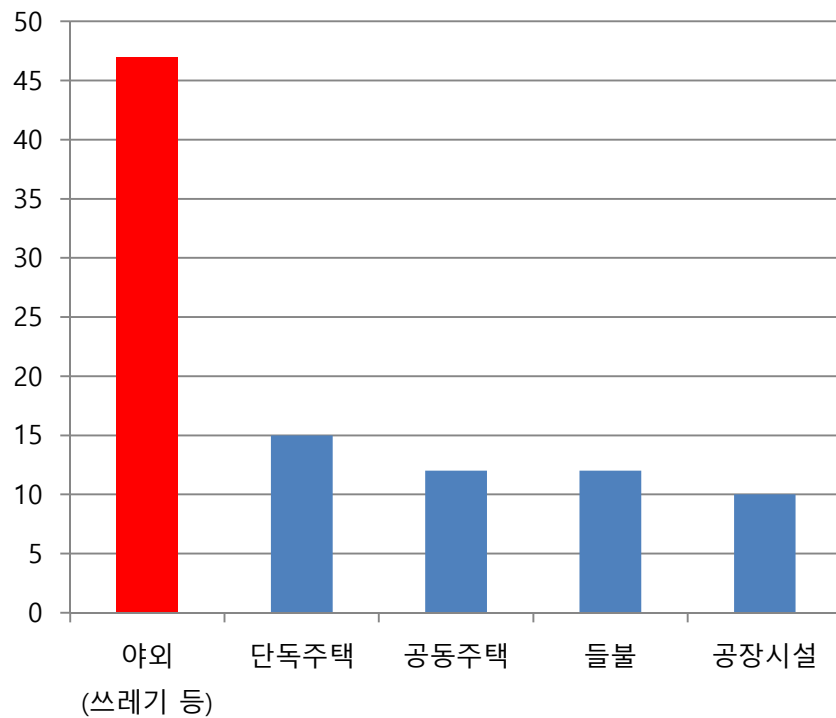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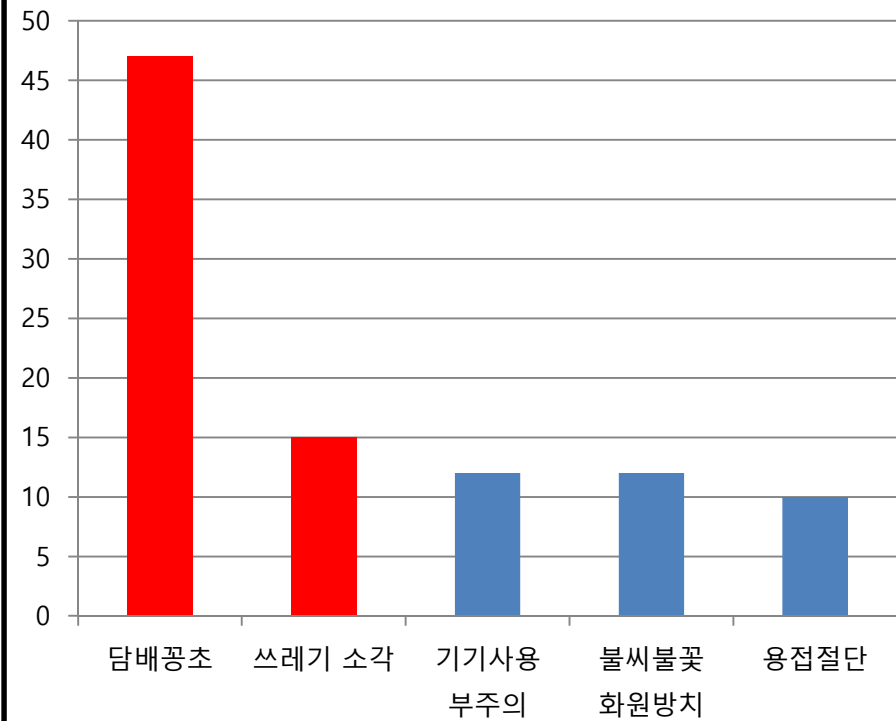
구미시 화재발생 현황

출처: 구미시 안전재난과

장소별 화재



요인별 화재



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익산시가 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봄철산불방지기간을 맞아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이달 20일부터 3월19일까지 파쇄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인접(산림과 이격거리 100m이내)한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이다.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순회 파쇄를 실시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파쇄사업을 통하여 48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산불방지를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평일·휴일 2인1조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밖에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108여명을 사역하여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 발생 시 익산시 산불대응센터(859-7599), 산림과(063-859-5853, 5888), 소방서(119)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 "산불 많이 난 시·군에 예산 등 페널티"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산불이 끊이지 않자 6일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나가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점검했다.

경북에서는 올해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숲 192ha가 탔다.

산불 가운데 14건은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4건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했다.

haru@yna.co.kr



산불 대응 영상회의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